

광남일보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또 빈손…10일까지 자율협상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막판 담판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양 대학이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 신청 시기 연기를 요청했고, 양 대학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협상의 불씨는 이어지게 됐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형배 특별시장은 이날 오후 장흥에서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 강성희 목포시장, 손훈보 순천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원아·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중재 회의를 주재했다.

당초 오후 4시께 마칠 예정이던 회의는 1시간 이상 길어진 오후 5시를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배치 문제를 비롯해 대학 통합 추진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형배 시장, 관련부처에 통합 신청 시기 연기 요청
양 대학 의대 설치 고수에 합의점 못 찾아 중재 실패
대학본부 등 추가 지원방안 거론…극적 타결 기대도

회의에서는 민 시장이 관련 부처에 양 대학의 통합 신청서 제출 시기를 일주일 가량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대학은 사실상 오는 10일을 협상 시한으로 두고 대학 간 자율 협상을 이어가며 접점 마련을 시도할 전망이다.

민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추가 협상과 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양 대학이 자율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추가 중재 회동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동은 교육부의 대학 통합 절차를 앞두고 마련된 사실상 마지막 중재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양 대학은 대학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소재지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장기간 평행선을 이어왔다.

목포대는 통합대학 본부를 순천에 두고 의과대학은 목포에 설치하는 절충안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순천대는 통합대학 본부는 목포에 두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순천에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과대학을 양보하는 지역에 대학본부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양 대학 모두 의과대학이 지역 의료체계는 물론 대학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협상 시한이 사실상 연장된 만큼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의과대학 소재지를 둘러싼 양 대학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 남은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교육계 관계자는 “양 대학 모두 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의과대학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상징성과 경쟁력을 갖는 만큼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얼마나 현실적인 절충안을 마련하느냐가 통합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정부가 대학 통합을 전제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어질 양 대학의 추가 협상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향방을 결정할 최대 변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무더위 탈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를 찾은 피서객들이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검토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를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 거점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8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노동·고용 분야 특례 도입까지 검토되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넓어질지 주목된다.

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현재 정부는 메가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기간제·파견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가특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영남·충청권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노동부, 추진방향…기간제 ‘2+2년’·파견근로 확대 중점
800조 메가프로젝트 뒷받침할 기업 투자 개선 등 초점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호남권은 광주 군공항 이전 예정지를 중심으로 826만4462.81㎡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추진되고 있으며, AI 국가데이터센터와 국가 AI컴퓨팅센터, 첨단 패키징 산업 등을 연계한 반도체·인공지능(AI) 융합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호남권을 AI와 반도체를 융합한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예정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AI 인프라와 첨단 제조 기반을 집적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노동규제 완화 방안 역시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메가

특구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검토안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다.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독 상위 3% 수준의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 칼라 이그제션’ 도입이 포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정 휴게 시간과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이 맞추면 특정 기간에는 집중 근무하고 이후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현행 최대 2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하는 이른바 ‘2+2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정규직 전환 대신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메가특구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파견근로 허용 업무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 전문업종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와 파견 기간 확대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메가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생산 일정에 맞춰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함께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과 생산 전환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연구인력과 생산인력이 집중 투입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유연한 근로제도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2면서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년 7개월 공석’ 켄텍 총장 선임 또 무산

재공모 불가파…리더십 공백 지속면 대학 운영 전반 부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의 제2대 총장 선임 절차가 또다시 무산됐다. 무려 2년 7개월째 이어지는 총장 절차는 또다시 중단됐다. 켄텍 이사회와 총추위는 향후 재공모 일정과 후속 총장 반에 부담을 안게 됐다.

2일 켄텍 등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는 최근 제2대 총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발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모엔 대학 내부 인사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모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추위는 지난달 24일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에서 최종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면접에서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내려지면서 총장 선임 절차는 또다시 중단됐다. 켄텍 이사회와 총추위는 향후 재공모 일정과 후속 총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대학인 켄텍은 총장 공백 장기화가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형 연구과제 확보와 재정 기반 확충, 우수 교수와 연구인력 영입, 대학원 경쟁력 강화, 캠퍼스 조성 계획 정상화 등 굵직한 현안이 총장 부재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대경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솔

시카보다 4배* 강한
쑥시카™ 진정의 힘으로
속건조로 생긴 수부지 트러블** 종결

* 자사 병용주름물 대비 진정 효능, in-vitro 시험 결과
*** 건조, 거칠어짐, 외부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 붉은기

